

# 사격 이윤리,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 선사

완도군청

## 2024 파리 패럴림픽

여자 10m 공기소총 입사 은메달  
광주시청 서수연 女탁구 은메달  
광주시청 박진철 男탁구 동메달



‘한국 장애인 여자 사격 간판’ 이윤리(49·완도군청)가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겼다. 여자 탁구의 서수연(38·광주시청)과 남자 탁구의 박진철(42·광주시청)도 메달을 따내는 등 광주·전남 태극전사들이 파리 패럴림픽에서 선전하고 있다.

이윤리는 지난달 30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대회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 입사(스포츠 등급 SH1) 결선에서 246.8점을 쏘 은메달을 차지했다. 249.7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아바니 레카라(인도)에 3.1점 뒤졌다.

이윤리는 마지막 한 발을 앞두고 레카라에 0.8점 차 앞서며 금메달을 획득하는 듯했으나, 마지막 발에서 10.9점 만점에 6.8점을 쏘면서 2위에 그쳤다. 이윤리는 앞서 23발에서 모두 10.0점 이상을 쏘다가 마지막 24번째 발에서 실수해 아쉬운 기록을 남겼다. 경쟁자였던 레카라는 마지막 발을 10.5점을 쏘았다.

이윤리는 이번이 다섯 번째 패럴림픽 참가다. 처음 출전한 2008년 베이징 대회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2020 도쿄 대회에선 메달 획득에 실패했으나 이번 파리



여자 사격 간판 이윤리(완도군청)가 지난달 30일(한국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 입사(스포츠등급 SH1) 결선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에서 8년 만에 다시 시상대에 올랐다.

이윤리는 경기 후 “은메달이란 목표를 이뤄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미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서 이번엔 은메달이어도 좋다고 생각했다”며 “마지막에 감격이 왔을 때도 아쉬움보다 ‘목표를 이뤘다’는 생각이 더 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윤리의 도전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윤리는 오는 3일 자신의 주종목인 50m 공기소총 3자세에서 다시 한 번 메달을 정조준한다.

이윤리는 “다음 경기에선 반드시 금메달을 따서 태극기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국 장애인 탁구 스타’ 서수연(38·광

주시청)은 윤지유(24·성남시청)와 함께 한국탁구 첫 은메달을 수확했다.

서수연과 윤지유는 지난달 31일 프랑스 파리 수드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탁구 여자복식(WD5 등급) 결선전에서 중국의 류징-쉐위안 조에 세트스코어 1-3(7-11 7-11 11-8 9-11)으로 아쉽게 져 은메달을 차지했다. 파리 패럴림픽 한국 선수단 두 번째 은메달이자 탁구에서 첫 은메달이다.

서수연과 윤지유는 1세트에서 선제 득점으로 시작했으나 계속 실책이 이어지며 연속 7실점 허용했다. 이후 추격의 고삐를 당겼으나 뒤집지 못하고 1세트를 내줬다.

2세트에선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임하며 7-5로 리드했으나 이후 계속 실수하면서 연속 6점을 허용했고, 2세트도 내줬다.

3세트에서 끈기있는 플레이로 11-8로 이겨 한 세트를 만회했으나 4세트에서 경기 후반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며 9-11로 졌다.

서수연은 만리장성을 넘지 못하고 은메달에 그쳤지만 2016 리우 패럴림픽 단식 은메달과 2020 도쿄 패럴림픽 단식 은메달에 이어 올림픽 3회 연속 메달을 따냈다.

박진철(42·광주시청)은 차수용(44·대구시청)과 호흡을 맞춰 탁구 남자복식

(MD4 등급) 동메달을 합작했다.

박진철과 차수용은 지난달 31일 열린 탁구 남자복식(MD4 등급) 4강전에서 피터로바스-잔리아포스(슬로바키아)와 폴 세트 접전 끝에 2-3(12-10 7-11 8-11 11-7 10-12)로 패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패럴림픽 탁구는 3, 4위전을 따로 치르지 않아 결승행이 좌절된 프랑스와 한국에게 동메달이 모두 수여된다.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은메달리스트’ 유수영(21·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정재군(47·울산중구청)과 짝을 이뤄 출전한 배드민턴 남자복식(WH1, 2등급)에서 은메달을 확보했다.

유수영과 정재군은 1일 프랑스 포르트 드 샤펬 아레나에서 열린 배드민턴 남자복식(WH1, 2등급) 4강전에서 일본의 마츠모토 타쿠나-나가시마 오사무 조를 세트스코어 2-0(21-12 21-12)으로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한국 장애인 조정의 에이스인 김세정(48·광주장애인조정연맹·롯데캐미칼)은 조정 여자 싱글 스킴(PR1 W1x) 2000m 결선 진출에 성공해 메달에 도전한다.

한국 선수단 중 최고령 선수인 김옥금(64·광주시청)은 양궁 여자 컴파운드(W1) 종목에서 4위로 아쉽게 메달을 놓쳤다.

김옥금은 31일 프랑스 파리 앵발리드에서 열린 파리 패럴림픽 양궁 여자 컴파운드 개인전(W1) 동메달 결정전에서 테레자 브랜트르바(39·체코)에게 122-127로 졌다. 2016 리우 대회 혼성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딴 김옥금은 이번 대회에서 개인전 첫 메달을 노렸으나 아쉬움을 삼켰다.

최동한 기자

## 시체육회, 광주월드컵경기장 잔디 복구 ‘온힘’

### 17일 아시아챔피언스리그 대비 영양제 살포·롤잔디 전면 보식

광주시체육회가 오는 17일 추석 당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첫 경기를 앞두고 잔디복구에 온힘을 쏟고 있다.

1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유례없는 폭염 등 이상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영양제 살포, 잔디 파종·보식, 배토 작업, 통풍기 작동 등 잔디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잔디의 특성상 생육을 위한 적정 온도 15~24도가 되어야 하지만 이상기온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시체육회는 오는 5일부터 3일간 전문업체를 통해 가장 훼손이 심한 곳에

대해 선수들의 경기력에 지장이 없도록 롤잔디로 전면 보식할 계획이다.

또 ACL 경기를 위해 기타 부족한 부분을 9월 초까지 마무리해 프로축구 중계를 통해 유니버시아드대회와 세계수영대회를 개최한 국제 스포츠도시 광주를 아시아 전 지역에 홍보될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는 앞서 국비 등 106억여 원을 들여 천장 및 지붕 개보수, 화장실 리모델링, 관람석 의자 교체 등 주요 시설을 개보수했다.

한편 ACL 경기 일정은 홈·어웨이 각 4게임으로 치러지며 일본 요코하마 팀과의 첫 경기가 오는 17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 주 경기장에서 열린다. 최동한 기자

## 송원대, 대한주짓수회와 MOU... 주짓수 대회 개최

2023년 전국 최초 대학주짓수팀을 창단한 송원대학교가 지난달 30일 송원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대한주짓수회와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1일 제1회 대한체육회장기 및 제2회 송원대학교총장기 생활주짓수대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협약식에는 송원대 최수태총장을 비롯한 본부처장들과 대한주짓수회 오준혁회장, 박홍균광주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공공스포츠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지원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체육시설 서비스 연계 협력 사업 지원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 및 문화활동 전개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제1회 대한체육회장기 및 제2회 송원대학교총장기 생활주짓수대회’에는 200여명의 참가선수와 내외빈 등 300여명이 참석해 열띤 경연의 장을 펼쳤다. 최동한 기자

## KIA 대체 투수 스타우트, 데뷔 첫 선발전서 ‘호된 신고식’

### 삼성전서 4이닝 4피안타 5실점 타선 16안타 맹폭 6-5 역전승

KIA타이거즈 대체 외국인 투수 에릭 스타우트가 KBO리그 데뷔전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스타우트는 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솔뱅크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해 4이닝 4피안타(2피홈런) 2사사구 6탈삼진 5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스타우트는 직구를 비롯해 슬라이더, 커터, 체인지업 등을 고루 섞어 던졌다. 18명의 타자를 상대해 총 97개의 공을 뿌리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스타우트는 1회를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좋은 출발을 보였다. 첫 타자 김지찬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 세운 뒤 김현곤을 좌익수 뜬공으로, 구자욱을 삼진으로 잡았다.

하지만 2회에는 못매를 맞았다. 선두타자 디아즈에게 볼넷을 내준 뒤 박병호에게 우월 투런 홈런을 허용했다. 이어 강민호에 우전 안타를 맞았고 전병우와 안주형을 각각 중견수 뜬공과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양도근에게 1타점 적시 3루타를 허용, 3실점째했다.



KIA 에릭 스타우트가 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솔뱅크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스타우트는 3회에도 홈런을 얻어맞았다. 1사 후 구자욱을 몸에 맞는 볼로 출루시킨 뒤 2루 도루를 허용했고, 디아즈를 유격수 뜬공 처리했지만 박병호에게 우월 2점 홈런을 맞았다.

도근을 2루수 땅볼로 처리하며 이닝을 마무리, KIA에서의 첫 선발 등판을 마쳤다.

KIA는 선발 스타우트의 부진에도 불펜진의 호투와 타선의 힘을 앞세워 6-5로 역전승을 거두며 삼성 2연전을 모두 쓸어들었다.

KIA 타선은 장단 16안타를 터뜨리며 6점을 뽑았다. 5번 지명타자 나성범이 홈런 1개 포함 4안타 2타점으로 맹활약했다. 3번 3루수 김도영과 4번 좌익수 최형우는 각각 2안타 1타점씩을 생산했고, 7번 1루수 이우성도 2안타 2타점을 만들어 내며 힘을 보탤었다.

KIA는 0-5로 뒤진 4회초 무사 2·3루에서 이우성의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첫 득점에 성공했다. 5회초에는 최형우의 1타점 우중간 2루타와 나성범의 1타점 좌중간 적시타로 2점을 추가했다.

7회초에는 김도영의 좌중월 솔로홈런과 나성범의 우중월 솔로홈런이 터지며 5-5 동점을 만들었다.

9회초에는 역전에 성공했다. 2사 후 김선빈의 중전안타에 이은 이우성의 역전 1타점 좌중간 2루타가 터졌다.

김기훈(3이닝)-이준영(0.2이닝)-전상현(0.1이닝)-정해영(1이닝)으로 이어진 KIA 불펜진은 모두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팀 승리를 지켰다. 최동한 기자